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3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도광현 편집국장: 이형수

『김성관 목사 설교』



참 영광

“...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12~18)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는 사역의 참 영광에 관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진실로 이해하고 경멸하게 될 때 또한 그분의 자비를 마음 깊이 느끼게 될 때, 새 언약에서 찾을 수 있는 참 영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를 너희에게 부치거나 혹은 너희에게 말거나 할 필요가 있는나”(3:1).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일을 성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들의 자색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자기자신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일은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신분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절명도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참 모습, 곧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신분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궁금해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3:2).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바울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증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 자체가 그들의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참 영광

사도 바울은 이제 놀랍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참 영광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는 막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3:3).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 곧 우리를 위한 그의 신분이 바로 우리의 간증입니다! 물론 우리를 추천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복지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색이 바래거나 변화기도 하는 일로 쓰여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심령 속에 쓰여졌습니다. 다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편지가 실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인정하신 복음의 사역자입니다. 그들 중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자는 없습니다. 특별한 재능이나 기술,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확신있는 그리스도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주위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보다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올바른 성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더욱 훈련받고 거룩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합하지 적절하지 않은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그분 앞에 적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도”(4: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파멸 수 없는 자들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귀한 보배 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임을

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5:3).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율법보다 탁월한 복음

“자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의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6:3). 이는 우리에게 명확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의문은 심계명함과같이 쓰여진 율법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이전의 사역도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까. 죽음과 사그러짐으로 끝나고 말았던 모세의 사역에서도 빛나는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새 언약의 성령님과 함께 임하는 사역의 영광은 얼마나 더 빛났겠습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9:1). “없이 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11:3). 예수 안에서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행하는 일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같이 아니하노라”(13:3). 우리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얼굴에 나타나는 영원한 광채는 우리의 힘으로 숨길 수 없기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광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글픈 일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소위 율법에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광에 계시지 않으므로 그들의 심령과 얼굴은 가려져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호러 그 마음을 덮었도”(15:3). 그러나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16:3)!

생명과 자유를 주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과 자유를 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17:3).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유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세상적인 쾌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마음껏 술마시고 즐기며 인생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원하는 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까 아니면 속박입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귀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온전한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18:3).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은 점점 커집니다. 없어지고 말았던 모세의 영광과 달리 우리의 영광은 계속 커져만 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두 새 언약의 사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تبلی하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일을 하라고 명하셨습니까(마 28:18-20).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사역은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행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증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자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새롭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

Sermon of pastor Kim



Real Glory

... But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just as from the Lord, the Spirit."

(II Corinthians 3:12~18)

Today's passage regards Paul's letter to Corinth, wherein he really explains and brings to light the real glory of our Christian ministry. When we Christians truly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hope we have in Christ, when our hearts feel the true happiness of His mercy, we also become aware of the real glory found only in the new covenant.

Paul begins with two questions, "Are we beginning to commend ourselves again? Or do we need, like some people, letters of recommendation to you or from you?" (vs. 1). The first question underscores the attitude and behavior many people express when they accomplish something good. Their tendency is to focus on self rather than God. It is important to always keep in mind that all "good works" come from God, not by any measure of our own doings. The second question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who we are. As Christians, we are God's children. We don't require or need any special introductions. Our qualifications have already been approved and accepted by the Almighty!

Naturally, you may wonder how others will know your credentials. Paul succinctly states, "You yourselves are our letter, written on our hearts, known and read by everybody" (vs. 2). Paul is referring to his ministry and its evidence i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Corinthians were witnessed to and accepted the gospel of Christ, their transformation was known not only to Paul but to everyone (including us) through Paul's communication.

Now comes the beautiful, amazing, true, and real glory of our Christianity,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the result of our ministry,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human hearts" (vs. 3). Yes, our credentials are our testimony! God's letter of recommendation is written not on a piece of paper for you to carry around and show everyone; it is not written in ink (something that can fade, blur or dissolve). It is permanently written in our hearts. Every Christian heart carries with it God's everlasting letter of recommendation.

Do you know what this means? Every Christian is a qualified minister for God. No one is better and no one is less important than any other Christian. It doesn't require special talents, skills, knowledge, or abilities. The only requirement is your faith, trust and obedience in Christ. Isn't that incredible? So many Christians look at other Christians as more qualified, more spiritual, more godly. They think they need to be more disciplined, more holy, more of whatever, in order to become a qualified Christian. Nonsense! This is a total waste of time, time better spent in communication with God and His direction for your life.

Therefore, we Christians should always have a great confidence! We needn't ever worry about whether or not we are qualified. We are qualified! We have the best credentials in the world! "Such confidence as this is ours through Christ before God" (vs. 4). In Christ, we have priceless value. His precious blood cleanses us into perfection before God.

Again, Paul reminds us that our competency has nothing to do with our own doing, "Not that we are compet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for ourselves, but our competence comes from God" (vs. 5). God is not only our Creator, He is also our provider. "He has

made us competent as ministers of a new covenant - 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vs. 6). Wow! Here we have it spelled out for us quite clearly.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The letter refers to written laws; such as the Ten Commandments. Paul, in no uncertain terms, makes it perfectly understandable that we are not saved by the law but solely by God's grace. And what is God's saving grace? Jesus Chris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ministry before Christ had its glory. Remember Moses' face after he came down from Mt. Sinai? It shone with the glory of God, so much so that the Israelites could not look steadily at him, though this ministry's conclusion led to death and its glory faded. Can you imagine how much more the glory and ministry of the Spirit of the new covenant shines? "If the ministry that condemns men is glorious, how much more glorious is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vs. 9)! "And if what was fading away came with glory, how much greater is the glory of that which lasts" (vs. 11)!

Because we Christians have such a great hope in Christ, we are fearless! We are bold in our actions and in our proclamations! "We are not like Moses, who would put a veil over his face to keep the Israelites from gazing at it while the radiance was fading away" (vs. 13). Our glory shines forever! Our hearts and faces have a permanent glow that we don't ever have to hide, that we can show everyone we meet and everywhere we go.

The sad news is that there are still people, just like the Israelites, who rely solely on the written law. Their faces and hearts are covered, because Christ does not dwell in their hearts. "Even to this day when Moses is read, a veil covers their hearts" (vs. 15). The good news is,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the veil is taken away" (vs. 16)!

The gospel of Jesus Christ offers life and liberty. "Now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vs. 17). So many Christians don't grasp the significance of this freedom. Their perspective of freedom is limited to worldly enjoyments. They think that having fun is being free to drink alcohol, do drugs, party and totally indulge their self-interests. Is this freedom or is this bondage? There's no greater freedom than in Christ! He provides a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 a happiness so great that there is no worldly comparison.

"And we, who with unveiled faces all reflect the Lord's glory,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likeness with ever-increasing glory, which comes from the Lord, who is the Spirit" (vs. 18). I'd like to shout! AMEN! We Christians are being transformed daily by the Holy Spirit into an amazing likeness of Christ. The glory that is in us grows. Unlike Moses, whose glory faded, our glory increases!

As Christians, we are all ministers of the new covenant. Like Paul, who spread the gospel of life and liberty, we too are commended and commanded by God to do the same (Mt. 28:18-20). Our Christian ministry, led by the Holy Spirit, evidences itself in the lives of people we witness to in all our activities; both great and small. Our qualifications are awesome, for the real glory of God glows more and more in us through the wonderful Spirit of the Lord. 🙏

게네사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용위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수님은 호숫가에 떠 있는 한 배에 승선하셨습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무리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명령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눅 5:4). 그 때 시몬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눅 5:5)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시몬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인하였습니다. 적어도 시몬은 바다에 관한 한 잔배가 굵은 배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고기잡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이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부의 경험으로 밝은 낮 시간에, 그것도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은 지난밤에 온 종일 수고하였지만 허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에 타기 전까지 그물을 쏘고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만약 시몬이 자신의 경험을 불고고 의지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무엇이 시몬으로 하여금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과 말씀만을 의지하도록 했을까요? 그것은 시몬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 동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시몬으로 하여금 놀라운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눅 5:1~11)

오늘날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삶에 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삶에서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생각과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8).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없던 때 행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변화됨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충성케 하시고 순종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때, 시몬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눅 5:8).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지 못한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광의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생각과 길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길을 좇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들을 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소서.

“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리라”(눅 5:11).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주님을 좇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소서.

(신동자 전도사)

이집트 단기선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까지 하리라”(요 1:23).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싶었습니다. 2001년 중국으로 선교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친히 일하심을 보고 경험했던 은혜들을 다시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땅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 땅을 품는 기도자 열마나 힘은 잊지를 못했습니다. 내게 불어오는 그 땅을 품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가기 전의 기도제목 중 하나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작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산맥들이 줄지치는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저 땅을 내가 직접 걷고 있다면 어떨까? 눈 앞에는 험준한 산맥, 그 뒤의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막하고 두려워 할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해 포기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안전하고, 골짜기가 있어, 어느 쪽이 더 높고 가깝고, 험준하고 완만하지 그 앞집이 희희한 눈으로 들어옵니다.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보다도 더 멀리 이미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새롭게 깨닫았습니다. 내가 어떤 산을 넘게 될지 하나님은 미리 아시며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선교를 떠나는 비행기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이집트 선교 내내 실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집트는 선교도 금지되어 있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B국은 외부인에게는 대단히 심한 철저한 이슬람이라는 정보를 미리 접한지라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어찌된 일인지 전혀 우리를 경계하지 않았고, 친절하고 반갑게 맞아주며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으며,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마침과 핸드북을 주의깊게 보아주었습니다. 그러한 예의바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B국 사역을 위해 처음 S만도에서 머물렀을 때, 우리는 그 곳 주님께 우리의 신분을 들고간다고 말랐습니다. 그러나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어 이슬람교도인 주인까지 사모하시어 그의 도움을 받아 우리로 낯선 그곳에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사역할 것을 인도해주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찬양과 율동을 따라하며, 우리가 ‘예수사랑’ 하면 함께 소리쳤고, 함께 두 손 모아 영접기도를 드렸습니다. 때로는 준비해 간 그림을 보여주며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눈빛으로 설명해 주기도 했고, 때로는 땅에 함께 그러가며 ‘예수님 사랑’ 하고 글씨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그곳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음직라도 비뚤비뚤

한 글씨로, 또 잘 되지도 않는 발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제 마음 속에 오세요’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했을까를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고, 그 땅을 밟고 걸으면서도, 차를 타고 달리면서도, 순간순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마움과 반가움의 표시로 우리에게 차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팔찌나 목걸이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카이로에 돌아와 조운은 여유를 갖고 도시전도를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판단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를 하루 더 S지역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너희가 전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날을 이슬람의 극렬분자들이 모여 사는 가장 치열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며 ‘야, 오늘 내가 이 영혼 때문에 여기에 하루 더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두셨구나. 오늘 우리가 아니면, 어찌된 형편에 한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할 수도 있는 생각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동안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발견이 하나님의 준비작업임을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오늘 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전 세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기도가 우리 후 세대에 게 이 땅을 향한 복음의 문을 더 넓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땅을 품는다. 이슬람 국가를 변화시킨다’.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이고 크게만 들리는 말일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슬람교인이 얼마나 철저한데 어떻게 변화?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인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변할 것같지 않던 로마가 변했던 것처럼, 변하지 않을 것만 같은 저 이슬람권 국가들도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저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작은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김 선 영(대학부)



말씀대로 된 선교사역

정 원근 (12교구 5지역 카자흐스탄 담장)

2월 중순부터 3월(수, 금, 주일) 모이기 시작한 저희들은 먼저 주님 앞에 각자의 죄를 간절히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11일 간의 카자흐스탄 단기선교' (4월 29일~5월9일)를 결심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출발하기 전에 "결박, 환란이 우리를 기다린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각오한 10명의 팀원들에게는 사스와 전쟁, 현지 경찰에 대한 소문들이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랑, 즉 복음증거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 버리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지도 한 장만을 가지고 담대히 선교지로 떠난 저희들의 선교사역에 대하여 무슬림 카자흐스탄 인들은 복음을 대적하여 해방하기도 하였으나 주님은 우리에게 "절코 두려워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 "주님의 택한 백성이 많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로 담대히 그리고 힘있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겸손의 순종, 잠시도 쉬지 않는 눈물의 기도, 당한 시련을 참고, 땅의 것에 대하여는 잠시라도 담하지 않으며, 거리에서나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구주 예수님만이 진짜이심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전하려 하였습니다. 저희들과 동행하신 성령님의 역사는 결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 모두는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인물에게 나와 같은 사람 즉 구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담대히 전하였던 그 감격은 지금도 가슴 가득히 차 있습니다.

우리를 절모로 초청하여 예배드렸던 고려인 감삼남 씨와 이름이 고추장과 비슷하여 배움을 잡게 하였던 그 집 아이 그리고 올라 자매의 가정, 검역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직원들, 환관장직에 초청되어 찬양과 말씀을 나누었던 수많은 허객들, 또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했던 운전기사 부부, 지방의 변두리 사역지였던 11개 마을의 영혼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십자가 복음이 그 곳에 두루 퍼지게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는 끝까지 거부했던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 아글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이 나와 카자흐스탄에서 또다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최인 중의 최인인 저희들을 이방의 작은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다음 선교 떠날 때까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잘 간직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음 선교 때에는 사역을 더욱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사마시 쇼머러 두스더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에 우리 이란 친구들은 별다른 감동이 없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 나의 죄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면 어떤 형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이슬람식 믿음이다. 그 형제는 오히려 "우리는 이사마시(예수 그리스도)를 코란에서 배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너희는 코라넷을 믿고 인정하지 않느냐?"라며 한바탕 논쟁을 벌이며려 한다. 우리 이란팀 선생님들은 여기에 외선부의 이란 형제들에 대한 큰 벽과 같은 답답함과 허공을 치는 것보다도 같은 허무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을까? 심방을 통한 인간적인 친근감, 임금체불에 대한 도움 요청, 의료혜택, 이발, 일터에서는 받을 수 없는 존중, 소꿉이나 물건 수리를 위한 정보획득 등등... 안타깝지만 이런 형제들뿐만 아니라 천원교회 국내 외국인 선교부에 출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다수가 그렇지 않다 싶다. 그렇지만 위에 열거한 이들의 필요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접촉점이 되기 때문이다. 적어도 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이들은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예배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필요를 더 많이 채워줌으로 더 많은 이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겠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의 진보가 없다. 이런 형제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이러한 도움은 이들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한 사람들로 살아갈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런 형제들을 교회에 데리고 올 수는 있어도 이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영원한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비록 어눌한 말로 사람의 죄를 위해 양의 피를 흘리는 풍습과 어린양으로 우리 죄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지만, 이런 형제들의 눈빛에서 진지함을 볼 수 있었다. 이들 중에는 좀더 감동을 필요로 하지만 학습세례를 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생겼다. 바로 지난 주에는 참 포도나무부터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통역하다가 자신이 은혜받아 포도나무부터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기 위해 세례를 원하는 이란 형제도 생겼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막 10:27).

할렐루야! 참 감사한 일이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허무한 외선부, 특히 무슬림 사역!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한 이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의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무쪼록 이런 형제들과 외선부 지체들이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말씀 앞에 심령이 변화되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기도해 주길 바란다.

(영영일 간사, 외선부 이란팀)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4교구 4지역	박필래	불가리아	6월 17일(화)-6월 26일(목)
14교구 3지역	이정택	몽 골	6월 17일(화)-6월 27일(금)
9교구 5지역	권 철	카자흐스탄	6월 17일(화)-6월 27일(금)

내재 사역 중언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에바다부	조종환	카자흐스탄	6월 10일(화)-6월 20일(금)

지난 주 도착한 선교팀

팀	팀 장	선교지	기 간
17교구 11지역	한만관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4교구 6지역	문호식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5교구 7지역	전원일	우즈베키스탄	6월 3일(화)-6월 14일(토)

CMTC 집중훈련 안내

1. 일 시 : 2003년 6월 21일(토) 14:00~18:00
2003년 6월 28일(토) 14:00~18:00
2. 반 편 성 1강~4강까지 강의하는 A반과
5강~8강까지 강의하는 B반으로 편성했음.
3. 장 소 : 갈릴릴움 (A반), 제2교육관 2층 (B반)
4. 대 상 : 단기 선교 신청자 및 관심있는 성도
5. 회 비 : 학생 5,000원 / 일반 10,000원

A반 강의 내용 / 강의 장소: 갈릴릴움

강의 시간	교육 과목	강 사
1강 (14:00~14:50)	영성 훈련(1)	정현인 목사
2강 (15:00~15:50)	교회 선교 정책	이종철 목사
3강 (16:00~16:50)	선교 역사(1)	고광환 목사
4강 (17:00~17:50)	선교 역사(II) (정,각,불,회,천)	김광호 목사

B반 강의 내용 / 강의 장소: 제2교육관 2층

강의 시간	교육 과목	강 사
5강 (14:00~14:50)	전도 실제	여국근 목사
6강 (15:00~15:50)	팀훈련의 실제 준비 및 사역	방준영 목사
7강 (16:00~16:50)	단기 선교 이론과 실제(나라별)	여성기 목사
8강 (17:00~17:50)	영성 훈련(II)	이종대 목사

* 전반기 CMTC 훈련 수강자 중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으로 인해 수료하지 못한 성도는 금반 집중 훈련에 이수하지 못했던 과목을 수강하여 CMTC를 수료할 수 있음
(이수하지 못한 과목은 단기 선교부에서 확인할 수 있음)

선교기도회

2003년도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의 불씨를 더욱 지피고자 아래와 같이 기도모임을 갖고자 하니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03.6.25, 수요일 2부 예배 후
2. 장소 : 베다니홀
3. 참석대상 : 선교위원회 위원, 실행위원, 147개 팀장, 선교에 뜻이 있는 분

주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도다

황대원 (청년1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만화를 공부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후, 주위의 친구들과 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제 자신이 1년 전 그 자리에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여 주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현실적이며 평요한 어떤 결과를 얻고 싶었습니다. 공부하면서도 제 안에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확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게 주신 소명과 마음 속의 확신이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아니면 환상을 보거나,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그 무엇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에서 아픔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너무 아셨습니다.

주님에게서 도망치듯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1~2년 정도 돈이나 모아야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광고지에 있는 소개소를 통해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탄 오징어잡이 배는 일본 북해 위에서 조업할 계획으로 출항했습니다. 멀어지는 육지를 보며 웬지 모를 서글픈 감상을 짓는 것도 잠시 뿐이었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분주함과 배 밑미로 인해 정신없이 시간은 흘러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토 때문에 갑판으로 나왔다가 어둠에 압도되어 멈춰 있었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배보다 높은 파도가 제 옆으로 지나갈 때는 죽음이 목덜미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공포가 다가와 있는 힘을 다해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배 밑바닥에 있는 선실로 돌아와서 시원 51권을 읽으며 제 안에 있는 죄를 토해내듯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 앞에 펼쳐진 어둠에 떠는 것은 저와 항상 동행하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배보다 큰 파도가 와도 저를 삼키지 못할 것은 저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 다시 갑판으로 올라왔습니다. 고요함과 눈부심이 가득한 바다와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그 물이 맞닿아 있는 것을 봤을 때, 제 입술은 저절로 주 여호와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항한 지 6일째에 이상하게도 배는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해서 기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일 년 농사로 준비한 오징어잡이 배가 기관이 고장나는 것이 그 곳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원인 모를 고장으로 배는 바다 위를 표류했습니다. 그 때 저는 성령님께 떠밀려 한 배에 있는 무서운 아저씨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 옆 자리에서 주무신대 아저씨께서 조용한 목소리로 오래 전 교회에 갔을 때 마음에 와 닿았던 찬송인데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복음 성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의 가사를 적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서 내리면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교회에 다시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들도 한 번 교회에 가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사를 기억하는데도 적어 드리고 이 배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후 우리 배는 다른 배에 끌려 포항으로 귀항했습니다.

총 9일 간의 항해를 통해 저에게 새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거센 파도치는 바다 위라도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심대한 계획하심을 믿고 그 분량 만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천국일꾼의 삶이란?

이재욱 (대학부)



천국일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현재의 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국일꾼이라고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하지만 그리하지 못한 제 모습이 항상 부끄럽습니다. 대학부 GBS 공간을 통해서 매년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이들을 넘기지 못하고 말씀보는 것에 소홀해졌던 합니다. 이런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주일에는 유년부 교사로 섬기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제미었을 거라는 생각으로 유년부 교사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천국일꾼으로 자란다는 생각에 말씀을 깊게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전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말씀과 함께 전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일꾼의 또 하나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직접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갈 나오지 않는 친구들에게 꾸준히 연락하며 주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장래를 계획하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힘을 때마다 저에게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사랑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학교에서는 점심시간마다 말씀 묵상 나눔을 하는 동아리에 가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때마다 기도를 해서 친구들에게 크리스천임을 보이고 행동이나 언어사용에 있어서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모습에 많은 편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았나면 풍기고도, 전하라는 대안 이기기로 기독교를 반박하기도 하고, 크리스천은 다 그러며 미안하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답하려 해도 그 친구들은 들어오지 않고 하지 않아 힘이 들기도 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까? (히 10:38). 그런 어려움과 관련된 내용이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었습니다. 편파하는 자들로부터 물려서 말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할 일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인내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어려움과 편파가 있겠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의 앞 길을 인도해주시고 계획하신대로 이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나의 빛이시고 내 구원이십니다. 이는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지식 ②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식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행위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한다면 순종하는 행위이며, 여호와와 언약을 맺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 22:12)라고 했다. 노아도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언약을 믿고 방주를 만드는 일에 순종하였다(히 11:7). 우리 역시 하나님께 경외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노아처럼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러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주신 언약은 무엇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그 언약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주신 언약이며, 이미 성취된 언약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언약이다. 그리고 그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결로가 그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다.

복음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지식은 자신의 두뇌활동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두뇌활동이 뛰어나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세상의 지식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게 만든다. "이러한 두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성도도 많지 않지만 그는 이처럼 생각하는 순간 진실로 여호와에게서 멀어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의 개인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있다.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남다른 여자들, 노인들이 젊은 이들 모든 사람이 믿고 순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이 얼마나 공의로운 지식인가? 여러분은 어떤 지식을 쌓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기초 (권오성)

말씀의 유익

사무엘 상 · 하를 필사한 경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써 봐도 성경의 지혜를 알 길이 없어 답답했다. 그러던 중, 사무엘 상이 주간 성경공부로 개설되어 기뻐하며 등록했다.

사무엘 상에는 뚜렷이 나타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었다. 처음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다가 죄의 습성으로 인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또 다시 범죄하는 순서를 밟는다. 이런 악순환은 정말 답답할 정도로 끊임없이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 삶을 성경에 비추어 보니,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나라들처럼 자신들을 통치할 왕을 원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좋아보였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그러나 결국 백성들은 그 왕권으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나 또한 이러한 경험들이 즐비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가?

사무엘 상을 보면서 악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한다. 특히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한나의 이야기이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보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이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하나님께 실제로 맡겼다. 우리의 소유는 무엇인가? 자식까지 내어놓는 믿음을 가진 한나의 이야기야말로 나를 주님께 이끄는 말씀이다. 또한 다윗과 요나단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다. 예전에 필사할 때는 요나단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어찌 친구 때문에 아버지께 저리도 불효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러한 나의 생각이 얼마나 유교적인 것이며 주님의 뜻을 모르는 생각이었는지 성경공부를 하며 깨달았다. 요나단은 친구를 바라보았다. 기 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다.

또한 사무엘 상이 단순히 구약의 역사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예표하고 끊임없이 구세주를 언급하고 있음이 놀랍고 신기했다. 예배 시간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는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뜻을 알고 기뻐하며 감동받는다. 그러나 예배시간에는 공평한 것이나 내가 깨지 못하는 것들을 물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성경공부 시간에는 공평한 것들을 알아갈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지금은 몇 개의 과목들을 공부하지만 성경 전체를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임명희 집사
(주산성경공부 - 사무엘 상)

다음 주일 찬송

96장 “온 세상이 감감하여서”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는 내용의 이 아름답고 경쾌한 찬송가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나라 성도들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 작시자 작곡자 모두 불명이다.

1절 : 영광의 주, 세상의 참 빛, 온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포로가 되었을 때,
최가 진리와 존귀함을 빼앗아갔지만 그 빛이 들어왔고 모든 것들은 밝게 빛이 났다.

2절 :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의 영령을 순종하는 자는 주의 빛으로 그의 찬란한 날을 원히게 밝히리라.

3절 : 죄의 어둠 속에 거하는 자는 눈이 멀었고, 그의 삶은 혼란함과 두려움 뿐이다.
예수께 의해 깨끗함을 입은 자는 믿음의 눈이 밝게 열려 주의 뜻을 명확히 깨닫게 되리라.

후렴 : 영광스럽도다! 영광과 찬영을 돌리세! 언제나 영광의 주님께!
나의 마음 속에 그의 빛이 빛나네, 온 세상의 빛은 오직 예수!

(찬양위원회)

주요호실

최세원(8교구 5지역 노유 구역)

지난 해 받았던 척추 수술에서 미처 회복되기 전에 직장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75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23일 다시 직장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23일에 항암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빠른 회복을 위해 운동을 하도록 권유하지만 몸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합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틴 조이드 존스의 십자가



9.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속성(屬性)에 관한 어떤 책을 공부하면서 크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그 책의 저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임을 성경으로 입증한 후에, 그러할 중요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지적했다. 그 지적이 내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다.

왜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의 관점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등 나에게 직접적으로 이로온 것들이었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의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읽으면서 그 때 일이 다시 떠올랐다. 십자가를 목상하는 일에 있어서도 비슷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십자가를 목상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주시는 구원’ 등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로온 것들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십자가의 전부로 여기는 일이 많지 않은가! 반면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려 하였던 ‘하나님의 의로우심’(롬 3:25)에 대해서는 이해도 반박하여 귀중히 여김도 적지 않은가!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없다”라고 전제한 다음에, 십자가 안에 영혼의 존귀함, 죄의 본질과 사악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엄위로운 진노와 심판 등 하나님에 관한 매우 풍성한 진리들이 함께 담겨 있음을 역설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당신은 십자가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았는가? 십자가를 설교라고 여긴 적이 있는가? 십자가가 당신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귀담아 들었는가? 과연 우리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저 풍성한 진리들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 것일까?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죄의 본질과 사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 것일까? 또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위로운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 것일까? 세월이 흐를수록 십자가에 담겨 있는 진리의 한없는 풍성함과 무한한 깊이를 보게 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으며 날마다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생각만 든다.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자.

(이태백 목사)

새 · 기 · 축 · 을 · 한 · 영 · 합 · 나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703	오숙희	1 청년2부	김민정(1)	712	강순덕	9 청년2부	이희철(9)	721	강민호	19 청년1부	백경옥(4)
704	정윤진	1 청년3부	김정혜(1)	713	서현실	9 청년3부	이희철(9)	722	윤보연	19 청년1부	
705	김은숙	1 청년2부	조용화(1)	714	김일영	10 청년1부	조옥순(10)	723	전여진	19 청년1부	
706	김종훈	1 청년1부		715	한양수	12 청년2부	김순민(12)	724	차원우	19 대학부	김정현(16)
707	최신경	2 청년2부	안정자(2)	716	김주환	12 청년2부	박남희(15)	725	이더혜	19 고등부	이재일(9)
708	서숙희	2 청년2부	유수민(12)	717	조성진	12 청년1부	박용순(12)	726	윤성훈	19 고등부	이덕혜(1)
709	나자하	4 청년2부	김민정(1)	718	김상식	13 소년부	윤영선(13)	727	김지민	19 중등부	김옥순(2)
710	김숙진	8 청년2부	조영호(8)	719	전옥순	14 청년2부	이예스더(19)	728	전유리	19 중등부	서인희(2)
711	홍광란	8 청년2부		720	박종일	15 청년2부	박종대(15)				

※ 순천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들을 섬기며

강 민 아 (예바다부 교사)



오전 9시가 가까워지는 주일 아침, 조용히 학생부 교사예배를 드린 다음 중간중간 작은 유류분 밖 예배실로 시신을 보낸다. 크랭크를 끼어-! 작이-! 예배를 들었던 사무실의 문이 큰 소리를 내며 열리고, 5살의 민호와 한이가 얼굴을 붉추 내린다.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나를 포함한 유치부·아동부 교사들은 조용중용 기방을 켜진다. 예배실로 들어서는 순간 벌써 아들들은 강대상에 올라가 있고,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며 소리치고 있다. "조용히 해!", "이리 와서 자리에 앉아요~!", "선생님에게 와요" 이런 말들은 아무리 소리를 크게 해도 우리 아이들께겐 통하지 않는다. 일론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 아이를 붙잡고 눈이 마주치면 한 후 손을 얹어 갔다후 두 "웃-! 하거나, 양손의 검지 중지를 얹어서 나타낸 수화로 '자리에 앉아' 라고 해야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기 가득한 얼굴을 한 채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실 뒤쪽으로 자리를 잡는다. 6살 민호, 7살 유림이, 한이, 제형이 그리고 초동 1·2학년의 소연이, 근호는 교회를 다닌 지 이제 6개월이 되었다. 아직까지 아는 단어는 '하나님', '예수님', '기도' 등 겨우 몇 단어이기에 완양할 때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알아듣지 못한다. 세상이 고요하나 금방 지루하고 싫증나며, 조금만 자리에 앉히려고 해도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이런 아이들을 겨우 목사님 설교하실 때까지 만이라도 붙잡고 앉아 있다. 예배의 흐름을 몸으로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찬양할 땐 어린 교사리 손을 움직이게 하여 같이 수화로 찬양하도록 한다. 목사님의 설교시간은 우리 아이들께겐 지루한 30분이다. 그 30분 동안 교사들은

아이들이 앞을 쳐다볼 수 있도록 지도하느라 정신없고, 너무 지루해 하는 아이들에겐 손에 종이와 연필을 쥐어준다. 그러면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가 "꼭꼭" 책상을 친다. 어떨때는 그 소리에 만족한다는 듯이 장난 가득한 웃음을 얼굴에 띄우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미술활동을 겸한 성경공부 시간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눈과 손을 가지고 배우며 나아가기때, 성경공부시간에도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한다.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에 색깔하며 예수님을 알아가고,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색깔해 가며 노아의 방주를 알아간다. 아이들은 집중시키기가 어렵고, 산만하여 하나의 설명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든다. 선생님의 얼굴만을 보고 있어도 이해시키기 힘들때, 아이들의 시선은 새로운 눈요감이가 있으면 그쪽으로 휩쓸러가기 바쁘다.

현재 예바다부, 유치부, 초동반의 교사들은 90%가 농아인이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어떻게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반복을 해도 못 알아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기도 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성경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이들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문장이 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직은 내딛는 말গুলো 다른 비장애 아동들보다 늦을지라도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준다면 우리 아동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새로 창건교회 예바다부에 들어오는 심령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해본다.

진리의 섬

빌립보서(Philippians)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또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기쁨'에 관하여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 바울이 홀로 느끼고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그가 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와 관계된 기쁨임과 동시에 다른 신자들이 연관되어 공동체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바울이 기쁨에 대해 말할 때에는 그 기쁨의 근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일 뿐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은 한 마디로 관계성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와 의 영적인 관계와 신자와 신자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읽을 때에는 기쁨이라는 것이 믿음과 신과의 관계(關係)에서 생기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십시오. 바울이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빌립보' 교회의 신자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발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피차 어떠한 관계를 통해서 함께 기쁨을 누리길 원하시기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유념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서도 발생한 분열에 관한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바라는 외부적인 도전과 함께 분열이라는 내부적인 어려움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가정을 중심으로 모였던 '가정 교회'의 형태였기 때문에 분열의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에 대하여 하나됨을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2:2, 2:14), 서로 섬길 것에 대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2:3-10). 또한 교회 일꾼의 이름을 사술하면서 다툼을 자처하였고(4:2), 피차 서로 돌보며 함께 동행한 것을 권면합니다(4:3). 하지만 '빌립보' 교회에 나타난 분열은 복음과 진리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율법의 의무를 주장하는 할례당들의 외적인 도전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의 내부에서 벌어진 분열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차이로 말미암은 논쟁일 가능성이 지배적입니다(1:5-17, 2:14, 4:2, 5). 사실 이런 측면에서 지상에서 모든 교회이고 결코 이러한 분열의 문제와 상관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교회가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본질적인 문제요 다양성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분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성(中心性)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성의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피차 조망한 십자가의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는 논쟁과 다툼의 지리로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발견해야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맞이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는 단 순히 고난을 참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더욱 위대한 그 무릇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3:3-6, 12, 18, 21, 2:13, 16-17, 3:7-12, 14, 20-21, 4:1, 6, 11-13 등).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누르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화신은 우리 역시 어려움에 놓이게 될 때, 변함없는 기쁨을 제공해 줄 능력이 될 것입니다.

김동혁목사(순천교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랑

신 준 성 (사랑부 교사)

사랑부에 발을 디딘 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사랑부에 들어왔을 때 낯설고 분위기도 어색했지만, 그러한 저에게 가득 있어 다가왔던 수 많은 사랑부 학생들에 대한 기억만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눈 앞에 선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랑이 존재하지만 돌봄과 헌신을 요구하는 아가페 사랑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부 조제들과 같은 친구들을 일반인과는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3년 간의 사역을 하시면서 돈 많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예수님이셨으며,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의 주님이셨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이름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지상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배웠던 사랑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부 선생님들은 지체장애인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봉사합니다. 사랑이 점차 사라지는 이 세상에 조제들과 같은 친구들을 세상에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모인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들의 마음은 세상에 존재하는 맑은 기쁨보다도 더 밝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흰색보다도 더 하얗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하는 돈도, 세상을 호령할만한 명예와 권세도 아닌 그늘진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외된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을 보면서 세상에 퍼져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깊은 구원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보다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사랑의 전부를 세상에 선이들과 편견으로 삼지 말고 힘써이하는 사랑부 학생들과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반 더없이 맑고 이런 사랑부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몸소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은 거리에 아이들은 꽃이나 화사하고 맑은 날씨보다 아름답습니다.

부록사				
이종대	정현민	김동하	서광진	박기인 46대출신
여성기	류병복	이종철	김영호	여국근 23대
김교섭	이우진	안승희	방준영	나광명 6대
정진호	김승덕	이성욱	고광환	김창남 7대
위관장	김기찬	김승수	장 훈	임원진 12대
이희식	최광철	하종철	안치원	이태복 충무부 17대
정중신	양계홍			최성근 충무부 9대
전도목사 이정철				
예도전사				
정연희	신동주	윤윤진	한영준	김민식 9대
홍순애	이승기	김일자	안태순	김진영 10대
조옥자	강경희	김정선	장혜구	최문실 7대
전연호	김영순	김정자	이수경	17대
전안감독 강구진		전임지휘자 서문성		
전임감독 강구선				